고진영, '슈퍼루키' 계보 잇는다 시즌 초반 상금·올해의 선수 1위

드라이브샷 정확도 95.8% 1위
'신인 3관왕' 재현 기대해 볼 만

18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쿠용가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여자프로골프(LPGA)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우승자 고진영이 생수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23)이 '슈퍼 루키' 박성현(25)의 뒤를 이어 '신인 3관왕'의 위업을 재현할 수 있을까.

고진영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우승자 미셸 위(미국)에게 2타 뒤진 공동 6위를 차지했다.

투어 회원 자격을 얻기 전인 지난해 10월 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올해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겼다.

지난달 LPGA투어 공식 데뷔전인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그는 무려 67년 만에 공식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고진영은 혼다 타일랜드에서 공동 7위, 싱가포르 대회 공동 6위 등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10위권에 진입하며 순조로운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상금(28만2641 달러)과 올해의 선수(39점), 신인상(271점) 등 주요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박성현이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9년 만에 달성한 '신인 3관왕' 금자탑을 1년 만에 다시 만들어낼 기세다. 고진영은 선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레이스에서도 690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이 부문 1위는 렉시 톰프슨(미국)이 차지한 바 있다.

올 시즌 4개 대회만 끝난 시점이지만 고진영의 탁월한 경기력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드라이브샷 정확도가 95.8%로 1위, 그린 적중률도 85.6%로 1위다. 티샷부터 그린 위에 공을 올리기까지의 확률이 투어에서 가장 높아 버디 기회도 많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드라이브와 아이언샷의 정확도를 앞세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9승을 거둔 고진영의 기량이 LPGA투어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고진영의 시즌 초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미국 무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올 시즌에는 아직 미국에서 열린 적이 없다.

또 5대 메이저 등 큰 대회도 시즌 일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진영으로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김민서 기자

국민가수 이문세, 2018 해외투어 스타트

호주서 시작해 美·캐나다로

지난 2월 '2017-2018 씨어터(Theatre) 이문세'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수 이문세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공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문세는 현지 기준으로 지난 3일 오후 7시,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에 위치한 ICC 시드니 극장(Darling Harbour Theatre, ICC Sydney)에서 '2018 씨어터(Theatre) 이문세'의 호주 공연을 개최하며 해외 투어의 막을 올렸다.

호주는 물론 뉴질랜드에서 온 관객들로 2500석의 공연장은 가득 찼으며, 관객들은 약 2시간 30분의 러닝타임 내내 한국보다도 더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4년 만에 호주를 찾은 이문세는 '광화문 연가', '소녀', 그녀의 웃음소리 뿐', '옛사랑', '붉은 노을', '깊은 밤을 날아서' 등 그의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관객들을 울고 웃게 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첫 공연으로 해외 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린 '2018 씨어터 이문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3월 30일), 시애틀(4월 3일), 뉴욕(4월 20일) 및 캐나다 밴쿠버(4월 7일), 토론토(4월 14일)에서의 공연 일정을 앞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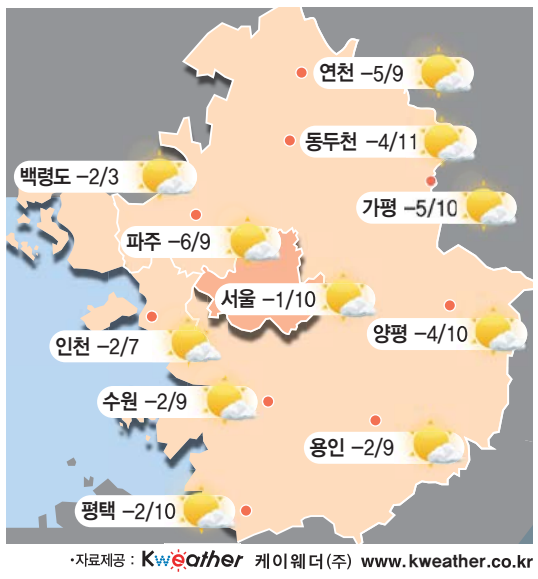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7 | 해짐 / 18:30

3월 6일
음력 : 1월 19일

수도권 날씨 -1~1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 가수 헤이즈. /HNS HQ 2 그룹 갓세븐. /JYP엔터테인먼트 3 그룹 노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4 그룹 워너원. /YMC엔터테인먼트 5 그룹 아이콘. /YG엔터테인먼트 6 가수 민서. /미스틱엔터테인먼트

레전드부터 아이돌·대세 가수까지

봄바람 부는 가요계 '감성大戰'

노을·민서·헤이즈·알리 등
음원강자·발라더 대거 컴백
아이돌 전설 동방신기 귀환

워너원·갓세븐·아이콘·NCT 등
보이그룹 총출동… '봄 대전' 예고

그룹 동방신기. /손진영 기자 son@

평창동계올림픽이 온 국민의 염원 속에 대장정을 마쳤다. 이와 함께 잠시 숨죽였던 가요계도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3월 가요계는 올림픽 만큼이나 뜨거울 전망이다. '레전드', '대세'로 불리는 솔로, 그룹들이 대거 컴백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겨울의 끝, 봄의 초입에 돌아온 이들의 '감성'에 주목할 때다.

◆노을부터 헤이즈까지, '믿듣가수' 컴백

이른 봄을 깨울 보컬 강자들의 귀환에 음원 차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알리, 노을, 민서, 헤이즈 등 '믿고 듣는' 감성 발라더들이 그 주인공이다.

2월 음원 차트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멜로 음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알리는 지난 2일 일찌감치 봄 감성을 담은 '너만'을 발매했다.

이어 보컬그룹 노을은 5일 새 싱글 '그날의 너에게'로 1년 9개월만의 컴백을 알렸다. 이별의 순간, 전할 수 없었던 위로를 담은 이 곡은 노을만의 진한 감성을 담아냈다.

지난해 말, 전국에 '좋아' 열풍을 불러일으킨 민서는 6일 '멋진 꿈'으로 정식 데뷔한다. '멋진 꿈'은 '청춘의 일기장(The Diary of Youth)'을 테마로 한 데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다.

민서는 데뷔 프로젝트의 4곡을 순차적으로 발매하면서 20대, 또래 청춘이 느끼는 다양한 고민과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 리스너들의 공감을 이끌 계획이다.

'음원 퀸' 헤이즈는 오는 8일 새 미니앨범 '바람'으로 또 한 번 차트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더블 타이틀곡 '젠가(Jenga)'와 '내가 더 나빠'를 비롯해 총 6곡이 담긴 신보 '바람'은 '위시(Wish)'와 '윈드(Wind)',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다.

기존 헤이즈의 감성을 담은 '내가 더 나빠'와 새로운 모습을 담은 '젠가'를 통해 상반된 그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향 저격… '핫'한 컴백 릴레이

봄을 앞둔 가요계가 더욱 분주한 이유는 계절이 가진 특별한 상징성 때문이다. 봄은 곧 시작을 의미하기에, 다양한 갈래의 감성이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365일 쏟아져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컴백에도 유난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제각각의 개성과 감성으로 중무장한 그룹. 이들 중 누가 팬덤을 넘어 대중의 취향까지 저격할지 주목된다.

2월에는 걸그룹 컴백이 이어졌다면, 3월은 보이그룹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15년 차 '레전드' 동방신기부터 '괴물 신인' 워너원까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마친 동방신기는 3월 신보 발매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앞서 유노윤호는 솔로곡 '드롭(DROP)'을, 최강창민은 솔로곡 '여정(In A Different Life)'을 통해 상반된 감성을 선보였던 만큼, 두 사람이 새롭게 선보일 음원에 기대가 모인다.

데뷔 4개월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고, 당해 신인상을 휩쓴 워너원은 올해 '황금기'를 예고했다. 오는 19일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는 그 시작이다.

5일 발매된 스페셜 테마 트랙 '약속해요'를 시작으로 올해 활동의 서막을 연 워너원은 이미 티저 영상과 이미지 등을 공개하며 컴백을 예열 중이다.

3대 소속사의 보이그룹들도 차례로 컴백한다. SM은 동방신기와 더불어 NCT가 출격 대기 중이고, JYP의 갓세븐과 YG의 아이콘, 위너도 보이그룹 대전에 참가한다.

SM의 신개념 그룹 NCT는 초대형 프로젝트 'NCT 2018'로 컴백한다. 연합팀 NCT U, 서울팀 NCT 127, 10대 멤버로 구성된 청소년 연합팀 NCT DREAM(드림) 등 18명의 멤버가 총 출동한다.

NCT는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다. 멤버들의 다양한 조합과 변신을 선보이는 만큼 뮤직비디오만 총 6편이 제작됐고, NCT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시리즈도 준비돼 있다.

갓세븐은 '작곡돌'로 입지를 굳힌다. 오는 12일 발매되는 신보 '아이즈 온 유(EYES ON YOU)'는 지난 앨범 '7 for 7'에 이어 또 한 번 멤버 전원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특히 이번 타이틀곡 '룩(LOOK)'은 '7 for 7'의 타이틀곡 '유 아(You Are)'를 통해 갓세븐만의 감성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은 리더 JB의 곡으로 기대를 모은다.

YG는 위너와 아이콘으로 쌍끌이 흥행을 노린다. '사랑을 했다'로 독특한 사랑을 노래하며 2월 한달 동안 차트 1위를 수성한 아이콘은 5일 '고무줄다리기'를 기습 발표하고 '음원 강자'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다.

아이콘과 또 다른 감성으로 사랑 받고 있는 위너는 3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REALLY REALLY'로 차트 안팎을 뒤흔든 위너는 대중성까지 겸비한 팀으로 거듭났다. 이들이 보여줄 두 번째 봄 감성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이밖에도 장문복, 마마무, 에이프릴 등이 컴백하고, 비투비의 정일훈, 인피니트 출신 호야(이호원)이 솔로 음원을 발매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